

데스크 시각

근사한 이웃을 사귀는 방법



김미은 문화1부장

성진기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카페 필로소피아'를 꾸린 건 딱 20년 전이다. 첫 출발은 학동에서였다. 전남대 정문 앞과 대인동 등을 거쳐 지난해 전남여고 정문 앞에 작은 동지를 틀었다. 날찍한 책상이 있는 방에 다양한 책과 오디오 시설을 갖춘 이곳에서는 다양한 철학 강의가 열린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함께 읽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즈음 만났을 때 선생은 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카페로 초대해 '고등들을 위한 철학과 음악 소풍'(강사 김홍영) 프로그램을 준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학교 앞에 자리하다 보니 오다가다 여고생들을 자주 만났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하게 됐다는 이야기였다.

얼마 후 전남여고 교사가 카페에 찾아왔다. 학교 앞에 이런 공간이 생겨 좋다면

몇 차례 드나들던 이 교사는 이후 교장과 함께 방문했다. 수능 프로젝트를 들던 교장은 아예 규모를 키워 강의를 기획해 보자고 했다. 장소는 학교 강당으로 정해졌고 250여 명이 참여했다.

여고 앞 철학 카페

“아이들이 잘 들던가요?” 성 교수가 웃으며 말했다. “얼마나 잘 들겠어요. 지루해 하는 아이들도 있고, 만청 피우는 아이들도 있었지요” “그래도 선생님, 수백 명 중 한 명이라도 철학에 관심을 가지면 그걸로 된 거지요.” 그렇게 않아도 정문 앞에 작은 동지를 틀었다. 날찍한 책상이 있는 방에 다양한 책과 오디오 시설을 갖춘 이곳에서는 다양한 철학 강의가 열린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함께 읽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비아동 북카페 '도란도란'은 100년 된 한옥을 개조한 공간이다. 운영자는 엄마들을 중심으로 한 '까망이 협동조합'. 사회 생활 경험이 거의 없는 주부들이 덩석 카페 운영자로 나설 수 있었던 건 3년 전 문을 연 '까망이 작은 도서관' 덕이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도서관이 생겼고, 엄마들은 이곳에서 아이들과 책도 읽고, 뜨개질도 하며 다양한 활동

을 펼쳤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과감히 카페 운영이라는 또 다른 꿈을 꾸었고, 이제 마을 공동체를 실험 중이다. 어느 날, 집 옆에 문을 연 도서관이 없었다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멋진 이웃이 만들어낸 마법 같은 일이었다.

지난해 말 수완 지구에 오픈한 동네 책방 '숨'의 풍경도 인상적이었다. '나니아 연대기' 작가 C.S 루이스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책방 주인과 50대 중년 여성이라니. “아, 이곳은 이런 대화가 가능한 서점이지구나” 싶어 신기했다. 커피를 마시며 일본 여행 서적을 읽고 있던 한 남자는 오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에 앞서 여행을 준비 중이었다. 그가 책방을 떠날 때 주인들은 따뜻한 격려를 건넸다. 아, 누군가의 격려를 받고 싶다면 이곳에 오면 되겠구나. 회사나 집 근처에 이런 곳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었다.

멋진 이웃이 부리는 마법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의외로 근사한 이웃(공간도, 사람도)이 많다. 지역의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도서관은 가장 만나기 쉬운 이웃이다. 광주에 있는 '작은 도서관'만 206개다. “나를 키운 건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었다”는 빌 게이츠의 말

을 빌리지 않더라도 도서관만큼 근사한 이웃은 없다.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은 회사에서 가까워 가끔 찾아가는 이웃이다. 무엇보다 보고 싶어 신청한 책이 도착하면 연락이 오고, 가장 먼저 빌려갈 수 있는 혜택을 준다. 꼭 내 책장에서 책을 꺼내 읽는 기분이다.

지독한 한파가 몰아치던 날, 광주극장은 온통 어지러웠다. 수도가 얼어 화장실은 이용할 수 없었다. 난방도 잘 되지 않아 커다란 담요를 들고 상영관으로 들어가야 했다. 이때 50대 중년 여성이 말했다. “광주극장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다른 극장에서는 일주일 만에 내려 버린 '브루클린의 멋진 주말'을 볼 수 있어 하는 말이었다. 근사한 이웃을 알아본 근사한 이웃들이다.

지난 2006년 고(故) 신영복 선생의 성공회대 퇴임을 기념해 지인들이 발간한 '신영복 함께 읽기' 서문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60여 명이 써낸 글은 '각자 나무로 살다가 선생을 만나서 더불어 숲을 이룬 많은 이들의 이야기'라는.

이웃과 '더불어 숲'이 되는 2016년이 되면 좋겠다. 우선은 내 주변에 얼마나 멋진 이웃이 있는지 꼼꼼하게 둘러보자.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근사한 이웃, 분명 찾을 수 있을 거다.

/mekim@kwangju.co.kr

社說

닷 올린 국민의당... 양당구도 개편 시작됐다

국민의당이 어제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었다.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지 51일 만이다. 이제 4·13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야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날 대전에서 창당 절차를 마친 국민의당은 양당 구도 개편과 정치 혁신 및 중도층 결집을 내세워 제3당의 기치를 올렸다. 안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박주선·김성식 전 의원 및 박주현 변호사를 최고위원에 내정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합류했다.

국민의당이 닷을 올림으로써 우선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야권의 적자 자리를 놓고 명운을 건 승부가 시작됐다. 양당은 2004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맞붙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분열된 채 총선에 임하게 됐다. 호남 민심쟁탈전에 불이 붙은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진검 승부가 불가피해 보인다.

어찌 됐든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키며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거나 그 이상의 성과를 낼 경우 한국 정치 판도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한국 정치를 뒤흔든 '태풍'이 되기 위해선 '새로운 피' 수혈에 더 진력하고 파격에 가까운 공천 혁신이 따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총선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 선 유권자들이 제3당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주는 참신한 인물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총정·수도권에서도 기반을 다져 전국 정당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게스트북'을 자체한 국민의당이 살 길은 차별화된 정책 경쟁과 대안 제시에 있다. 민생·안보와 정적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치권의 고질병인 정쟁에 휩쓸리지 말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설은 다가오는데 영락공원 가는 길 올해도...

광주 영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가 20년째 개설되지 않아 해마다 명절이면 교통 혼잡이 되풀이 되고 있다. 설 연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어 올해도 영락 공원 가는 길은 교통 혼잡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곳은 영락공원로 전체 3.57km 구간 가운데 미개설 도로 1.1km 구간이다. 이 미개설 도로로 인해 영락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성묘 후 차량을 돌려 진입도로(효령삼거리~영락공원)로 다시 되돌아 나와야만 된다. 따라서 수십만 명이 불리는 명절 때만 왕복 4차선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 U턴 차량이 뒤엉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평상시 5~10분 소요되는 진입도로(2.47km) 구간이 명절 연휴기간에는 무려 2~3시간가량 걸린다고 한다. 특히 영락공원 주변에는 망월공원묘지와 국립 5·18민주묘지가 있어 교통 혼잡은 더욱 피할 수 없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미개설도로 1.1km 구간만 개설하면 된다. 이 구간이 영락공원을 관통, 북구 장등동 장등마을로 이어짐으로써 성묘객들이 당초 들어왔던 진입도로로 U턴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지난 1997년 도로로 결정 고시된 후 현재까지 이 구간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겨 두고 있다. 미개설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연결도로가 없다는 이유다. 결국 내년 말까지 광주 북부 순환도로 2공구가 개통하면 이 도로를 영락공원로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마저도 50억 원 가량의 소요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아직까지 미개설도로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재정이 빠듯한 사정이야 이해가 가지만 많은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도로 개설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1972년 부탄왕국의 싱게 왕추크 국왕은 국민총행복지수(GNH : Gross National Happiness)라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었다. 한 국가의 경제 규모나 성장률 나타내는 국민총생산(GDP)로는 국민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 문화 진흥 등을 통해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행복지수는 9개 항목으로 나눠 계량화돼 있다. 삶의 만족도를 중시하다 보니 GDP에는 반영되지 않는 스트레스와 가

사 활동이 GNH에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애를 키우는 가사 활동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GNH 개발로 인구 100만 명도 안 되는 부탄은 국가별 행복지수 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부탄보다 1인당 GDP가 10배나 많은 한국은 지난해 조사에서 143개국 가운데 고작 68위에 머물렀다.

한국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강박증 탓이 크다고 한다. 2월 보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면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가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취업 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이력서를 분석해 본 결과 역시, '스펙 초월 채용'이 일반화됐지만 정작 취업 준비생들은 스펙에 더 연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불안한 마음 때문이다.

여수 출신 여행작가 김수영 씨는 일화돼 있다. 삶의 만족도를 중시하다 보니 GDP에는 반영되지 않는 스트레스와 가

사 활동이 GNH에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애를 키우는 가사 활동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GNH 개발로 인구 100만 명도 안 되는 부탄은 국가별 행복지수 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부탄보다 1인당 GDP가 10배나 많은 한국은 지난해 조사에서 143개국 가운데 고작 68위

에 서 벗어나라고 조 청춘드크에서 젊은이들에게 세 가지 갑속에서 벗어나라고 조 청춘드크에서 젊은이들에게 세 가지 갑속

강박 공화국

은펜클럽

역사의 정의에 어긋난 위안부 합의



김병인 서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 군에 의해 강제적으로 인신매매되고 성노예로 인권을 유린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관련, 최종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일본총리의 사과와 배상금 지급 조성이 포함됐다.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 당국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일본 외무장 기시다 후미오는 말했다. 또한 10억엔 정도의 예산으로 46명의 생존 위안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약속되었고, 한국은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해 주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류는 다시는

국제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각국은 다시는 전쟁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전쟁기간에 벌어진 전쟁범죄에 대해 피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면서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교육하였다.

독일은 전후에 초대 아데나우 수상부터 나치 피해자와 피해국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함으로써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1970년 12월 당시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유대인 희생자 추념비'를 방문했을 때 비가 내리는 가운데 뿔을 꿇고 오체투지(五體投地)하면서 사죄하고 용서를 빌었다. 독일 정부는 정신적으로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물질적으로도 배상에 충실하였다. 1952년부터 현재까지 유대인에게는 600억 달러를, 소련에게는 150억 달러를, 폴란드에게는 13억 마르크를 배상하는 등 11개 국가에게 배상하였다. 독일은 민간 기업에서도 전시 강제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100억 마르크의 기금을 조성하여 165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상하였다.

미국도 1941년 12월 하와이 진주만 공

격 직후인 루스벨트대통령 시절 「대통령 행정명령 9066호」에 의해, 약 11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로 수용했던 것에 대해, 1992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클린턴이 친필 사인한 사과 편지와 함께, 약 6만 명의 생존자에게 1인당 2만 달러씩 지급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하였다. 사망자는 유족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면서 모두 12억 5천만 달러를 지급했다.

캐나다도 1942년 일본계 캐나다인 강제 수용에 대해, 1988년 9월에 알루니 수상이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1인당 2만천 캐나다달러의 배상을 했고, 2012년 5월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정부도 연방 정부의 강제수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죄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인류는 다시는 전쟁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전승국어는 전범국어인 간에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함으로써 역사적 교훈을 실천하였다.

이른바 위안부는 1932년~1945년 사이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아시아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일본 정부가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실행한 인신매매와 성노예 제도였다. 홀로코스트의 살인과 규모가 같은

정도도 잔학하고 폭력적이었다. 하루에 50여 차레나 강간을 당하였고 살아남은 위안부 여성도 전쟁 범죄를 숨기려는 일본 군인에 의해 종종 총살당하거나 수류탄으로 살상됐다. 전체적으로 성노예 여성들 4명 중 1명 만이 살아남았을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한다. 노예무역 시기의 아프리카 노예 사망률보다도 높다.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잔혹한 역사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민간업자가 저지른 짓이라고 부정하지만 산더미 같은 증거를 압멸 수는 없다. 잠몰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굳이 '관여된'이라는 모호한 진술만 있을 뿐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는 없다. 또 법적인 배상금 대신 기부금만 있다.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인 배상이 없는 합의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정부는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기 바란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겨울 산행 즐기려면 철저한 준비부터

화·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무등산권은 제주도, 울릉도·독도, 부산, 청송, 강원평화지역에 이어 국내 6번째로 인증됐다.

무등산권 지질공원 면적은 246.31㎢로 '지질명소'는 무등산 천·자·인영봉 등 23곳, 역사·문화환경의 가치를 인정된 '비(非)지질명소'는 호수생태원·환벽당·가사문화유적권 등 22곳에 달한다.

게다가 무등산은 도심에 위치해 있어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연간 방문객도 360만명에 육박하는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 중 3번째로 탐방객이 많이 찾는 국립공원이다. 또한 겨울철에는 서석대 주변의 상고대와 정상부 눈꽃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무등산의 겨울경관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탐방객 스스로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안전한 겨울산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할 사항은 산행이 계획된 지역의 기상정보와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탐방코스 선택이다.

전국의 국립공원은 호우, 대설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탐방로 전 구간이 통제되고 있으며, 무리한 산행은 심장물연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겨울산행은 추위와 눈길에 의해 체력소모가 심하고 일조시간이 매우 짧아 기온차가 심하므로 일몰 2시간 전에 하산을 마쳐야 한다.

그리고 혼자서 탐방하기 보다는 3인 이상이 함께하고 충분한 준비운동을 실시한 후에 산행을 시작하고 산행 중간마다 체력 안배를 위해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산행 중 안전사고는 주로 하산할 때 발생하며, 하산을 서두르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다리에 힘이 풀려 미끄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유념해야 한다.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한 기상상황이 발생한다면 별다른 대비가 없을 경우 저체

온증에 걸려 위험해 질 수 있다.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면 심장이나 뇌, 폐와 같은 장기들의 기능이 저하되며 사망에 이르기도 하므로 산행 전에 체온유지를 위한 예방책이 중요하다.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뺏기는 부분, 즉 머리 보호에 신경 써야 한다. 머리 보온을 위한 방한모는 꼭 챙기고 일행 중 누군가에게 저체온증이 닥쳐 심한 오한을 겪는다면 따뜻한 음료를 먹이고 옷 등으로 몸을 감싸 체온을 더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밖에 장시간 산행을 계획한다면 초콜릿과 같은 열량이 높은 간식이나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눈에 반사되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보호안경, 눈길을 걷기 위한 아이젠과 스패츠 등 개인안전장비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산행 전 철저한 준비와 안전산행을 위한 등산방법 준수로 모두가 즐겁고 건강한 겨울산행을 즐기시기 바란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 부 2200-649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